

■ 일반논문

## 제중원과 세브란스 의전의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

여 인 석

연세대 의사학과

### 1. 머리말

19세기 말 근대서양의학이 조선에 들어오고 외국인 의사들에 의해 서양의술이 시술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서양의학이 단순히 바깥에서 들어온 남의 의학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 땅의 의학으로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을 통한 자국 의료인의 재생산과 자생적 의학 지식 산출을 위한 연구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이러한 과정은 더디지만 착실히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근대서양의학이 더 이상 외래의학이 아니라 이 땅의 의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근대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의학적 내용과 방법론이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의학이라는 학문의 구성방식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학문구성방식의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근대서양의학에서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의학은 임상적 대응을 중심으로 발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이 존재하지 않지만 근대서양의학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의학의 자연과학적 토대를 이루는 분야들을 별도로 분류하여 기초의학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의학의 확립을 통해 근대서양의학은 단순하게 임상적 경험이 체계적으로 집적된 경험적 지식체계가 아니라 ‘과학적’ 학문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기초의학은 근대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을 결정적으로 구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변별요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의학이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근대서양의학의 본질적 부분이 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용된 근대서양의학은 제중원과 세브란스를 비롯하여 여러 선교의료기관을 통한 영

---

\* 본 연구는 2005년 김명선 기념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미의학과 의학교, 대한의원, 그리고 일제하의 관립의료기관을 통한 일본의학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해방 이전 우리나라의 기초의학 수용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 양자를 모두 다루어야 하지만 이들을 모두 하나의 논문에서 다루기는 힘들므로 본고에서는 제중원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제중원에서 이루어진 기초의학교육

1885년 4월 10일 개원한 제중원은 이듬해인 1886년 3월 29일 의학교를 개교하고 의학교육을 시작했다. 병원의 설립을 조선정부에 제안한 알렌은 제안서에서 이미 병원을 통해 서양의학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었다.<sup>1)</sup> 제중원 의학교에서는 의학교육 시작과 함께 기초의학인 해부학과 생리학을 가르쳤다.<sup>2)</sup> 당시 이루어진 해부학과 생리학 교육에 관련된 구체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교수된 내용이나 교재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알렌이 골격표본과<sup>3)</sup> 해부도를<sup>4)</sup>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실습교재를 해부학 교육에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당시의 생리학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렇게 시작된 최초의 서양의학교육은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해부학과 생리학과 같은 기초의학이 처음으로 교육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후 의학교육은 제중원의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1893년 11월 1일 에비슨(O. R. Avison, 1860-1956)이 제중원에 부임하면서 의학교육이 재개되었다. 에비슨은 선교사로 오기 이전에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학교육에 대한 능력과 열정이 남달랐다. 부임 직후 제중원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있었던 갈등이 해소되자 그는 자신의 일을 돕는 학생조수를 뽑아 의학교육을 시작했다. 에비슨은 1895년부터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쳤고 역시 제중원에서 근무하던 여의사 화이팅(Georgiana Whiting, 1869-1952)은 생리학을 가르쳤다.<sup>5)</sup> 학생들의 교육에는 의학교과서가 필요했는데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과서의 편찬이 절실했다. 알렌과 헤론 시절 제중원에서 이루어진 의학교육이 결실을 맺지 못한 데에는 내외의 여러 요인이

1) 美案, 문서번호 158, 卍18047.

2)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August, 1909.

3) D. L. Gifford, "Education in the capital of Korea. II", *Korea Repository* 3(1896), p.214.

4) 알렌, 『알렌의 일기』(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1885년 2월 21일.

5) O. R. Avison, Report. Oct. 1/1895 to Sept. 30/1896.

있었겠지만 내적으로만 본다면 언어 문제와 적절한 교재가 없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의학교육의 경험이 풍부했던 예비슨은 교육에서, 특히 서양의학과 같이 당시 한국에서 생소한 학문을 가르치는 데 있어 자국어로 된 교재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서양의학의 가장 특징적 분야이며 생리학과 함께 대표적인 기초의학인 해부학의 교재 번역에 착수했다. 그는 한문과 영어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춘 젊은이를 찾아 그와 함께 영어권의 대표적 해부학 교과서인 그레이 해부학 책의 번역에 착수했다. 병원 일로 바쁜 틈틈이 작업을 한 결과 1897년경에는 번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당연히 해부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의 전문 용어를 전례가 없는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작업의 어려움을 예비슨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우리가 그레이씨 저의 해부학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 나는 조선말로 그 여러 가지 과학상 술어를 번역할 수 없음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를 번역만 할 뿐 아니라 새말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상 여러 가지 술어를 번역과 함께 새로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나는 부족한 조선말을 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에게 그 원어의 뜻을 알려주면 번역하는 사람은 나의 설명을 들은 후에 한문글자로 그 뜻에 맞도록 문자를 만들어 내었다. 이 모양으로 번역하여 만든 교재를 가지고 학생에게 첫 공과를 가르쳤다. 이것도 맨 처음에는 한문으로 술어를 적당히 만들지 못하고 영어 음에 맞춰서 술어를 쓰되 한문자를 사용하여 다소간 그 본 의미를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첫 공과의 준비를 가까스로 마치고 둘째 공과의 번역을 시작하였다. 첫 공과와 둘째 공과를 다 준비하여 가지고 가르칠 때에 김군의 도움을 받아서 끙끙대며 하던 양을 여러분이 잘 상상하여 아실 것이다.<sup>6)</sup>

사실 예비슨이 해부학 용어 번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당시에는 이미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된 해부학 서적이 적지 않게 나와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예비슨은 이러한 선행 작업을 참고하지 않고 오직 함께 작업하던 한국인 젊은이의 도움을 받아 원래의 의미에 부합하는 번역용어를 만들어내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그나마 적절한 번역어를 찾아내지 못해 음역으로 대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비슨이 선행작업을 참고하지 않고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선행 작업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일본식 용어나 중국식 용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옮기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기존의 일본식 번역어나 중국식 번역어와는 다른 용어로 번역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번역원고는 소실되어 우리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예비슨은 1899년 완성된 번역원고를 조수에게 맡겨두고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동안 조수가 죽는 바람에 그가 맡고

6) 『에비슨박사소전』, 『기독신보』제867호, 1932.7.13.

있던 원고도 관습에 따라 죽은 자의 옷가지며 소지품과 함께 불태워졌기 때문이다.

### 3. 기초의학 교과서의 번역과 출판

1900년 안식년에서 돌아온 에비슨은 의학교과서의 번역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이미 불타버린 원고에 연연하지 않고 일본과 중국 의학서적을 참고하여 두 번째로 그레이 해부학 책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해부학과 함께 다른 의학교과서의 번역도 이루어졌는데 1905년에는 해부학, 생리학, 화학, 약물학, 세균학 교과서가 번역되었다.<sup>7)</sup> 즉 기초의학을 포괄하는 교과서들이 이미 이 무렵 준비된 것이다. 이중 가장 먼저 약물학이 1905년 출판되었고 이듬해인 1906년에 해부학, 생리학, 화학 무기질이 출판되었다. 사실 에비슨은 해부학 교과서 번역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지만 두 번째 번역원고도 출판을 눈앞에 둔 1904년 소실되고 말아 결국 약물학 교과서가 가장 먼저 출판 되었다. 이 책은 이후 제중원에서 출판된 책들 가운데 유일하게 번역자의 서문이 있다. 약물학 교과서의 번역자 김필순은 이 서문에서 전통의학과 구별되는 근대서양의학의 특징으로서 기초의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본방에도 옛적부터 의약이 있었으며 서양과 같이 신체를 해부하고 검사하는 일이 없으므로써 집중에 밝지 못하고 화학을 알지 못함으로써 약재를 정밀하게 조제하지 못하여 그 성질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여 오늘날까지 위험한 일도 불소하고 불행한 일도 적지 아니한데 사람마다 수와 팔자를 한하여 혹은 의술의 연속치 못함을 원망하나 본래 의학의 발달이 되지 못하여 소상한 의서가 없었으니 어디서 좋은 의원이 생기리오.<sup>8)</sup>

약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근대서양의학은 약물을 경험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화학’이라는 자연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을 다른 치료술들과 구별시키고 더욱 엄밀하고 효과적인 의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과학을 토대로 하는 기초의학의 존재와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는 근대서양의학을 재래의 전통의학과 구별시켰다. 특히 이 책의 말미에는 70여 쪽에 걸쳐 각종 약품의 화학명과 화합물 명칭의 한글, 한문, 영어 색인이 달려있는데 이는 화학의 전문용어들이 수용되고 토착화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7) “Severance Hospital”, *Korea Mission Field* 2(1906), pp.93-96.

8) 김필순, 『서』, 『약물학 상권 무기질』(대한황성: 제중원 출판, 1906).

다음으로 생리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리학 교과서는 1906년에 처음 번역되었는데<sup>9)</sup> 번역의 저본은 일본인 ‘坪井次郎’이 쓴 생리학 교과서였다. 번역은 1908년 세브란스 1회로 졸업하는 홍석후가 맡았다. 홍석후는 세브란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관립 의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세브란스에 들어왔다. 관립 의학교에서 일본인 교사에게 일본어 교재로 의학을 배웠던 홍석후는 일어에 익숙했을 것이므로 일본책을 저본으로 하는 생리학교과서의 번역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부학이나 약물학과 같은 다른 기초의학이 특정화된 의학의 한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생리학은 의학의 한 분야이기도 했으나 일반 초·중등학교에서도 널리 가르쳐진 학문이었다.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쳐진 생리학은 현재 생리학의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인체 각 부분의 기능에 대한 지식에 일반적인 보건과 위생에 관한 건강상식이 더해진 것이었다.

홍석후가 번역한 생리학 책의 처음에 생리학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생리학은 동물과 식물의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학인데 이 책에 기록한 바는 전혀 사람의 몸의 생리로써 주장을 삼으리라.”<sup>10)</sup> 즉 생리학이 ‘사는 이치[生理]’를 가르치는 학문인만큼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에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생리학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보건위생 관련 상식들도 들어 있었다. 예를 들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건강한가에 대한 내용들도 생리학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sup>11)</sup> 그리고 1906년에 제증원에서 생리학 책이 처음 출판된 이후 초·중등학교용 생리학 책들이 연이어 번역되어 나왔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W.T. Smith, M.D., L.L.D.저, Mrs. W. M. BAIRD 번역, 생리학 초권(生理學初卷, THE HUMAN BODY AND ITS HEALTH), 조선야소교서회, 경성, 1908.

보성관 번역부 역술, 中等 生理學, 보성관, 경성, 1908.

임경재 역, 中等 生理衛生學, 휘문관, 경성, 1908.

안중화 술, 初等生理衛生學大要, 광덕서관, 경성, 1909.

안상호 편찬, 新編 生理學教科書, 경성, 의진사, 1909

1906년에 제증원에서 출판된 생리학 교과서도 사실 이러한 중등학교용 교재였다. 그것은 이 책의 서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바이다. 이 책이 생리학서로는 최초의 번역서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엄밀하게 내용을 따져본다면 의학 전공자의 교재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생리학적 지식을 전달해줄 교재가 필요

9) 홍석후 번역, 『신편 생리교과서』(대한황성: 제증원 출판, 1906).

10) 홍석후 번역, 『총론』, 『신편 생리교과서』(대한황성: 제증원 출판, 1906), 1쪽.

11) 홍석후 번역, 『총론』, 『신편 생리교과서』(대한황성: 제증원 출판, 1906), 71-74쪽.

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에비슨은 중등학교용 생리학이 아니라 대학교재 수준의 생리학 교과서를 마련했다. 그 출판여부나 현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908년 8월 현재 <고급생리학(Advanced Physiology)>이 번역된 상태였음을 보면 교육현장에서는 보다 고급 수준의 생리학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밖에도 출판되지는 않았으나 번역이 완성되었거나 번역 중에 있던 기초의학교과서로는 위생학, 세균학, 조직학 등이 있다.<sup>13)</sup>

제증원에서 번역된 기초의학교과서의 출판은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제에 강점당한 1910년 이후 한국어 의학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강점기 내내 한국어 의학교과서의 출판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지만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제증원에서 출간된 다양한 한국어의학교과서, 특히 기초의학교과서는 근대서양의학이 이 땅에 정착되는 과정에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4. 기초의학 교육의 체계화

1900년대 제증원과 세브란스병원의학교에서 이루어진 기초의학교육은 거의 에비슨의 고군분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다른 선교의사들이 때로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제증원의 책임자는 에비슨이었고, 또 에비슨 만큼 의학교육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다른 선교의사들은 모두 임상 의사였기에 기초의학 교육에 대한 그들의 도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에비슨이 의학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진료와 함께 의학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실망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sup>14)</sup>

다행히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이 문을 열면서 부임한 허스트(J.W. Hirst, 1864-1952) 덕분에 교육에 대한 에비슨의 부담은 한결 경감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학교육, 특히 기초의학교육의 체계화는 1908년 6월에 배출된 첫 졸업생들이 학교에 남아 후배들의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리고 교과과정도 점차 체계화되었다. 1910년부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생들이 모두 왔는데 1학년에는 물리학, 화학, 해부학, 생리학, 약물학, 동물학을 배우고 2학년에는 화학,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세균학, 약물학을 배웠다. 즉 1학년과 2학년

12)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to the Annual Meeting held at Pyeng Yang. Aug. 1908.

13) 박형우, 『한국근대서양의학교육사』(서울: 청년의사, 2008), 188쪽.

14) Annual Report of Seoul Station to Korea Mission, October(1902), p.24.

에 걸쳐 기초과학과 기초의학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초과학과 기초의학 교육의 많은 부분을 학교에 남은 1회 졸업생들이 담당했다.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1909-10년의 경우 김필순은 해부학과 생리학을, 허스트는 조직학과 세균학을, 박서양은 화학을, 그리고 에비슨은 약물학을 가르쳤다.<sup>15)</sup>

물론 당시의 기초의학교육이 지금 기준에 따른 전문적인 기초의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과목별 전문분야를 나누어 강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의학공부를 하여 의사가 된 한국인에 의해 기초의학강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13년 세브란스의 운영이 각 교단 연합으로 이루어지면서 각 교단에서 파견한 교수진이 보장되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sup>16)</sup> 특히 기초의학 교수진이 강화되었다. 북감리회 소속의 반 버스커크(J. D. Van Buskirk, 1881-?)는 생리학을 전담하게 되었고, 남장로회 소속의 오궁선은 해부학과 조직학을, 그리고 북장로회 소속의 밀즈(R. H. Mills, 1884-1944)는 세균학과 병리학을 맡게 되었다. 후에 1916년 11월 캐나다 장로회 소속의 스코필드(F. A. Schofield, 1888-1970)가 세균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밀즈는 병리학을 전담하게 되었다. 당시의 교과과정을 보면 1학년에서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의화학, 약물학을 배우고 2학년에서는 생리학, 의화학, 세균학, 병리학, 약물학을 배웠는데 생리학, 의화학, 약물학은 1, 2학년에 걸쳐있는 것이 특징이다.

## 5. 연구부의 창설

세브란스의 연합화와 더불어 기초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진이 보장되자 교육만 충실해진 것이 아니었다. 생리학과 의화학을 담당했던 반 버스커크와 병리학을 담당했던 밀즈, 그리고 임상에서는 외과의 러들로(A. I. Ludlow, 1875-1961)가 참여하여 1914년 11월 4일 세브란스 병원에 연구부(Research Department)가 설립되었다.<sup>17)</sup> 이들 가운데서도 특히 밀즈의 역할이 컸다. 밀즈와 같은 기초의학자가 주도하여 연구부를 창설했지만 이 연구부의 연구활동이 기초의학 연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밀즈는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한가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래서 연구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방향을 선교지인 조선의 상황에서 긴급한 보건의료상의 문제를

15) 윤진국의 진급증서. 제15호. 1910년 5월 30일.

16) A. F. Daniel, "Severance College: Doing things together", *Korea Mission Field* 9(1913), pp.296-297.

17) A. I. Ludlow,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Korea Mission Field* 26-5(1930), p.95.

해결하는 쪽으로 잡았다. 그는 연구부의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18)</sup>

### I. 일반적인 목적

1.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
2.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여 학생들 건강의 큰 적인 결핵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것.
3. 모든 임상의들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리학적 기준의 확립.
4. 이제껏 무시되어 온 관점으로부터 세계의 문제를 조명하는 것.

### II. 구체적 연구목표

1. 이전에 연구한 다른 나라들과는 음식, 관습, 습관이 다른 민족[즉 한민족]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문제의 연구.
2. 주로 가정에 관련된 보건과 위생 문제 연구.
3. 한국 고유의 음식과 그 음식의 가치에 대한 연구.
4. 평균적인 음식섭취 상태를 평가하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량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5. 수백 년 동안 경험적으로 사용된 고유의 약재와 처방의 가치 연구.
6. 동물 기생충 문제와 고유의 약재에 의미를 가지는 식물학적, 동물학적 문제의 연구.
7. 현재 출판되는 일본의 의학문헌과 한국 고유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거기에 담겨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영어권에 알리는 일.

연구부가 표방한 연구방향은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임상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위에서 열거된 연구목표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즉 한국인이 주로 먹는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당시 의화학의 주된 연구 주제였고, 또 고유 약재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약물학 연구이고, 풍토병에 대한 연구는 기생충학에 대한 것으로 실제로 기초의학의 연구 과제들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리학과 의화학을 담당했던 반 버스커크는 주로 한국의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했고,<sup>19)</sup> 밀즈는 고유 약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생충학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다.<sup>20)</sup>

18) Mills. *ibid.*, pp.23-24.

19) J. D. VanBuskirk, "Studies on the Diet of the Korean People", *The China Medical Journal* 35-4(1921), p.305; J. D. VanBuskirk, "What and How Much Shall the Student Eat?", *KMF* 14-12(1918), p.264; J. D. VanBuskirk, "The Cost of Enough to Eat", *KMF* 15-3(1919), pp.55-56; J. D. VanBuskirk, "The Composition of Typical Korean Diets", *Japan Medical World* 4-6(1924), pp.1-4; J. D. VanBuskirk, "Some Common Korean Food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 6. 전문학교 승격과 교실 체제의 확립

조선총독부는 합방 다음 해인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할 교육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특별히 같은 해 10월에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통제권에 있지 않은 사립학교들이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1915년 3월에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함과 아울러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는 곧 총독부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움을 의미했다. 따라서 세브란스는 총독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결국 일본식 교육 제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1917년 5월 14일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sup>21)</sup>

전문학교로 승격된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일본식 교실 제도의 도입이었다. 사실 이전에는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더라도 진료의 필요상 병원에서 임상 각 과로 나누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영역별 분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물론 학생 교육은 전문분야별로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특히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제도적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기술한 ‘연구부(Research Department)’였다. 연구부는 그 구성에서 나타났듯이 각 전문분야의 경계를 초월하여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였다. 따라서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연구주제를 잡아 연구를 하면 그뿐이지 그러한 주제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전문영역별 교육과 연구의 단위로서 교실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부는 그 원래의 위상이 애매해져 원래의 연구기관이 아니라 연구지원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1917년 전문학교 승격 당시 만들어진 기초의학 교실은 화학 및 물리학교실, 해부학교실, 생리학 및 생화학교실, 약물학 및 약학교실, 병리학교실, 세균학 및 위생학교실이다. 후에 생리학과 생화학 교실이 분리되고, 세균학과 위생학 교실도 분리된다. 처음 교실 체제가 마련된 당시는 각 교실의 책임자들이 모두 외국인이었다. 해부학교실은 일본인 가노, 생리학 및 생화학교실은 반 버스커크, 약물학 및 약학교실은 쿡, 병리학교실은 밀즈, 세균학 및 위생학교실은 스코필드가 맡았다. 그렇지만 각 교실에는 졸업생을 포함하여 모두 한국인이

14(1923), p.2.

20) R. G. Mills, “Oriental Medical Literature”, *The China Medical Journal* 16(1916), p.306; R. G. Mills, “Parasites, Chiefly Metazoan, Observed in 7,000 Specimens of Feces from Koreans, with an Attempt to Interpretate the Findings”, *The American Journal of Hygiene* 7-3(1927), pp.222-263.

21) 고시 제123호. 조선총독부관보 1433호, 1917년 5월 16일.

조수로 활동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 7. 한국인 기초의학자들의 등장과 활약

교실 체제의 확립과 함께 졸업생들 가운데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세브란스 졸업생 가운데 가장 먼저 기초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김창세였다.<sup>22)</sup> 1916년 세브란스를 졸업한 김창세는 1925년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인 최초의 공중보건 및 위생학 박사로 한국 공중위생학(예방의학)의 선구자였다. 김창세는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약 3년(1925-1927) 동안 모교의 위생학 교실을 맡았다. 이후에는 중국, 필리핀, 미국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공중위생사업을 벌이는 한편 독립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의 위생학이란 오늘날의 미생물학, 식품영양학, 영유아관리학, 공중보건학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학문으로 김창세에게 이러한 활동은 학문적 실천이자 국민을 강건하게 만들려는 의욕으로 잃은 나라를 되찾는 독립 운동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안사영은 1917년부터 생화학 및 생리학 교실에서 1924년까지 조수로 근무했으나 계속해서 생리학을 전공하지 않고 1925년부터는 임상의로 원주기독병원에서 근무했다. 안사영이 학교를 떠난 이후 학생 시절부터 반 버스커크 교수와 함께 일했던 김명선(1925년 졸업)이 모교 생리학교실에 남았다. 김명선은 연희전문 수물과에 입학하여 기초과학을 공부한 다음 세브란스에 입학했으므로 기초의학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고, 또 생리학을 연구하는 데에도 수물과에서 공부한 기초과학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던 중 그는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갈 기회를 얻어 소화기 생리학의 대가인 아이비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생활을 시작하였다.<sup>23)</sup> 연구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아 1932년 9월에 귀국했다. 귀국과 동시에 모교의 생리학 교수로 부임해 한국인 최초의 생리학 교수가 되었다. 생리학과 생화학은 처음에는 한 교실이었으나 이석신이 부임하면서 생리학교실과 생화학교실로 나뉘어졌다. 생리학교실은 반 버스커크에 이어 김명선이 책임을 맡았다. 한편 김명선 다음으로는 이영춘(1928년 졸업)이<sup>24)</sup> 졸업 후 1년간 생리학교실의 조수로 근무했다. 이영춘은 생리학 교실에 있었던 1년이

22) 김창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보건활동』, 『의사학』15-2(2006), 211-225쪽.

23) 김명선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있다.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서울: 김명선선생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 1997); 여인석, 『김명선: 세브란스의 수호자』,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423-431쪽.

24) 이영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권의 평전이 나와 있다. 서준창, 『쌍천 이영춘의 생애와 사상』(서울: 삼경문화사, 1998).

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선인 여학생의 초경연령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왕성한 연구활동을 보였다. 이영춘 이후에는 이성우(1934년 졸업)가 잠시 생리학 교실에서 조수로 근무했고, 이병희(1935년 졸업)가 뒤를 이어 들어왔다. 이병희는 김명선의 뒤를 이어 모교에 남아 생리학을 전공했다.

생화학교실은 독일에서 공부한 이석신이 책임을 맡으며 생리학교실과 분리되었다. 분리 이전에는 반 버스커크 교수가 생리학과 생화학을 모두 강의했으며 이학사 출신의 유전은 화학을 가르쳤다. 이석신의 부임 이후에 이학송(1932년 졸업)이 생화학교실에서 조수로 근무했고, 이학송이 임상으로 옮긴 이후에는 이학송과 동기인 권석근(1932년 졸업)이 1939년부터 생화학교실에서 조수로 근무했으나 그 역시 임상의사로 활동했다.

해부학을 전공하는 졸업생도 나왔는데 최명학(1926년 세브란스 졸업)<sup>25)</sup> 졸업 후 해부학 교실에 남아 조수로 일하다가 학교의 배려로 경도제대 의학부 해부학 교실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최명학은 경도제대에서는 오가와 교수의 지도로 태생학과 조직학을 연구했다. 최명학은 연구 주제를 귀의 발생으로 잡고 실험에 전념한 끝에 “Determination of the ear and side-specificity of the ear region ectoderm in amphibian embryos”란 제목의 논문으로 1932년 경도제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아 한국인 최초로 해부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명학 이전에는 유영호(1921년 졸업)가, 이후에는 백태성(1928년 졸업), 이덕호(1937년 졸업)가 해부학교실의 조수로 근무했다. 한편 최명학이 학교를 사임한 이후에는 1934년 강사로 부임했던 정일천(경성의전)이 해부학교실을 맡았다.

한편 기초의학자로서 최동(1921년 졸업)의 이력도 특기할 만하다.<sup>26)</sup> 최동은 어느 한 분야에 정착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초의학 분야를 섭렵했다. 그는 처음에는 기생충학을 연구했는데 1923년 중국 북경 협화(協和)의과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1년간 기생충학을 연구했다. 귀국 후인 1925년부터 한국인 최초의 기생충학 강좌 담당 교수가 되었으며 임상병리검사실의 책임도 맡았다. 검사실의 책임을 맡으며 그는 1925년부터 약 일년 간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변검사의 결과와 1925년 여름 휴가 동안 지방을 다니며 시행한 대변검사 결과를 모아 그 중 장내 원충을 비롯한 각종 기생충의 감염 현황을 <조선의학회잡지>에 발표하였다.<sup>27)</sup> 이 무렵 그는 동경에서 열린 제6회 극동열대의학회에 참석하여 “조선인의 잠복성 적리 및 야트린 치료 성적에 대하여”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28)</sup> 또 그는 1930년 한국인 의학자들이 모여 발간한 <조선의보> 창간호에서 당시 조선의 기생충 질환 감염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괄한 글을 실었다.<sup>29)</sup> 그는 이

25) 박형우·여인석, 『해부학자 최명학』, 『의사학』1-1(1992), 88-91쪽.

26) 이규식·양정필·여인석, 『최동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13-2(2004), 284-296쪽.

27) 崔棟, 『朝鮮人腸內原蟲及內臟蟲檢査成績ニ就テ』, 『朝鮮醫學會雜誌』16(1926), 686-695쪽.

28) 최동, 『제6차 극동열대병의학회에 대하여』, 『세브란스 교우회보』6(1926), 15-21쪽.

글에서 말라리아를 당시 조선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질병으로 기술하였다.<sup>30)</sup>

한편 1930년대에 세브란스 외과의 러들로 교수는 아메바성 간농양의 치료법으로 천자법을 도입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러들로의 환자 중 한 사람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러들로 교수가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외과 강사 강영길이 사직하고 병원에서 환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세브란스에도 법의학 전공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최동이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최동은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올라 1933년 3월부터<sup>31)</sup> 1935년 4월까지<sup>32)</sup> 일본 동북제국대학에서 법의학을 공부하고 기아사(飢餓死)에 관한 논문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sup>33)</sup> 이로써 최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학자가 되었다.

그밖에 세균학에서는 최영태(1930년 졸업)가 경성의전의 유일준 교수 밑에서 세균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일준 교수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자 어쩔 수 없이 경성제대로 옮겨 연구를 계속했고, 그 연구결과를 오사카제대에 제출해 1939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최영태는 세브란스로 돌아와 세균학교실을 맡았다.

한편 일본 학교인 경성의전과 경성제대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에 한국인은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 하더라도 이들 학교의 교수가 되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이에 세브란스는 우수한 한국인 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해 연구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생화학의 이석신(경성의전, 1921년 졸업), 약리학의 이세규(경성제대, 1930년 졸업), 병리학의 윤일선(경도제대, 1923년 졸업)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석신은 경성의전 졸업 후 베를린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1922-1926)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경성제대 의학부 조수를 거쳐서 1928년 세브란스 의전에 부임하여 생화학 교실을 이끌었다. 그는 세브란스에 재임 중이던 1932년 경도제대 의학부에서 다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세규는 졸업 후 경성제대의 大澤勝 교수 밑에서 약리학을 연구했고 1936년에 경성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5년에 세브란스 의전에 부임해 약리학교실을 창설했으며 이세규의 문하에서 주부생(세브란스 1937년 졸업), 이우주(세브란스 1941년 졸업) 등이 약리학을 전공했다.

세브란스 의전의 기초의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윤일선이었다. 1923년 경도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윤일선은 졸업 후 동교에서 병리학을 전공하여 의학박사 학위를 받

29) 최동, 「조선의 기생충」, 『조선의보』1-1(1930), 30-32쪽.

30) 최동, 같은 글, 31쪽.

31)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19(1933), 23쪽.

32)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24(1935), 54쪽.

33) 신동환, 「한국 최초의 외과병리 및 임상병리학자 최동 박사」, 『연세의사학』2-1(1998), 227-230쪽.

고 1928년 귀국했다. 그는 귀국 후 경성제대 의학부 병리학교실을 거쳐 1930년 세브란스 의전의 병리학교수로 부임했다. 원래 세브란스 의전은 미국식 실용주의 의학의 학풍이 강했으며, 독일식 실험실 의학의 영향 아래 있는 일본의 제국대학 출신들이 주로 교수로 있던 경성의전이나 경성제대와는 학풍이 많이 달랐다. 이러한 세브란스에 동경제대와 함께 일본 관학의 쌍벽을 이루는 경도제대에서 기초 의학을 전공한 윤일선이 교수로 부임한 것이다. 부임 초기 윤일선은 실용적 학풍의 세브란스 의전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또 기초의학 연구에 대한 학교 측의 이해와 지원이 부족함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내 그의 주변에 젊은 연구자들이 모였고, 그의 지도 하에 세브란스에서 많은 기초 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윤일선이 세브란스 의전에 교수로 봉직하는 동안 본인이 발표한 논문만 40편에 달했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그의 지도로 발표된 논문이 150편에 이를 정도로 윤일선은 당시 세브란스 의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초의학 연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윤일선의 박사학위 논문은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호르몬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그는 이후 호르몬과 인체의 과민반응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의 주된 연구주제는 칼슘, 비타민, 니코틴 등의 물질이 과민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와 관련된 부신피질, 난소, 고환 등 내분비기관들의 병리학적 변성이었다. 그는 또한 종양에 대한 실험적 연구도 활발히 하였다. 윤일선은 기초의학자로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이외에 많은 제자들의 논문을 지도했다. 특히 촉망받는 젊은 의학자 이영춘(세브란스 1929년 졸업)이 1935년 경도제대에서 받은 박사학위는 그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조선인 학자의 지도로 작성된 최초의 의학박사 논문으로 우리나라의 자생적 기초의학 발달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었다.

다만 학자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었던 이영춘이 학교를 떠나 농촌으로 간 것은 학문적으로, 특히 기초의학으로서는 큰 손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영춘은 학교를 떠나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학문적 열정을 버리지 않고 우리 농촌의 건강문제를 학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는 농촌의학을 스스로 개척해나갔으며, 해방 후에는 농촌의 건강과 위생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 8. 맺음말

제중원과 세브란스 의전의 기초의학 발전과정은 몇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처음은 근대서양의학의 입문으로서 해부학, 생리학 등의 기초의학이 교수되던 단계이고, 다음은 예비순에 의해 한국어 의학교과서의 번역과 편찬이 진행되던 단계이다. 이 단계는 대략

1896,7년부터 한일합방으로 한국어 교재의 사용이 불가능해진 1910년까지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각 과목별 전문가에 의해 기초의학이 가르쳐지던 단계로 물론 이 때 각 과목별 전문가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네 번째 단계는 1917년 전문학교 설립 허가와 함께 교실 제도가 확립되고 기초 의학을 전공하는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략 1920년대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졸업 후 각 기초학 교실에서 조수로 일하다가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받아온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 각 기초학교실의 주임교수를 맡게 되는 1930년부터 우리나라 기초의학은 자생적 발전단계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인 지도교수 아래서 한국인 학생이 지도받아 연구를 하는 학문적 재생산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제의 식민지였던 당시 상황에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구조였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의학계는 경성제대가 정점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일제가 설립한 여타의 의학전문학교들이 존재하는 위계적 구조였다. 사립인 세브란스는 이러한 위계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교수 밑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경성제대나 경의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었다. 물론 세브란스는 제국대학에 비해 열악한 전문학교라는 점에서, 더구나 일본정부나 총독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기관이란 점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을 딛고 자생적 기초의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더구나 일제 말기로 가면서 일제 당국에 의해 외국인 선교사들이 강제추방당하며 세브란스는 자의건 타의건 한국인의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에미슨이 이미 세브란스의 운영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운영권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한국인들에게 이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선교사의 추방이라는 급작스런 사태가 닥쳤지만 선교사가 없는 상황을 상정하고 미리 준비해왔기 때문에 운영상 큰 혼란은 없었다.

또 그러한 특징으로 세브란스는 식민지 시기 한국인 기초의학자들이 모여 있던 인재 풀이기도 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일본인 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생긴 학문적·교육적 공백을 세브란스에 있던 한국인 기초의학자들이 메울 수 있었다. 윤일선, 정일천, 이제구 등과 같이 세브란스의 기초의학 교수로 있던 학자들이 해방 이후 새로 만들어진 각 의과대학의 교수로 가서 의학교육과 연구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는 세브란스가 한국인 기초의학자들이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이처럼 세브란스는 엄혹한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 기초의학자들의 중요한 인재 풀 역할을 했다는 사실 또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제증원, 세브란스 의전, 기초의학, 근대의학

Abstract

## **Basic Medical Science in Jejungwon and the SUMC, 1885-1945**

YEO In-sok  
Yonsei University

The modern medical education in Korea began with Dr. Allen, when he began teaching medical education in the medical school affiliated with the Jejungwon, the first Western hospital in Korea. The medical education began to take more systematic shape when Dr. Avison took over the Jejungwon from the Joseon government in 1894. Dr. Avison made special efforts to prepare medical textbooks in Korean. He faced many difficulties, but he published medical textbooks in various subjects, including basic medical science such as anatomy, physiology, hygiene, materia medica etc. However, these textbooks discontinued from being used after the Annexation in 1910.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SUMC), the direct successor of Jejungwon, was forced to adapt to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Despite many difficulties the SUMC played very significant role by educating Korean medical scientists and giving them the posts to continue their research that were denied to Koreans at the Keijo Imperial Medical College.

Key words: Jejungwon, SUMC, Basic Medicine, Modern Medicine